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본문 | 시편 119편 49-50절

간략
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기대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준비 바른 자세로 앉아 깨끗한 마음을 준비하고, 성경책을 준비합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고백 사도신경

- 천천히 한 목소리로 소리 내어 고백해요 -



신나는 찬양시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1절)

- 유튜브 검색어 :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들여다보기

만약 하나님에 대해 소개해본다면 어떤 만들로 표현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ex)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9편을 보면,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 말해요. 여기서 '소망'은 가장 좋은 일에 대해 기대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기대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응답해주는 하나님을 만나며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서 보는 것으로, 읽는 것으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시편 119편을 기록했던 사람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모두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말씀을 통해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살았던 그는 말씀을 통해 일어설 수 있었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오늘을 기대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물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 번 말씀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 생각해보기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부모님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소망을 얻었던 경험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이야기해봅시다. 그리고 자녀들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 또는 성경 이야기가 있다면 부모님께 이야기해봅시다.

🔥 함께 기도

모든 나눔이 끝나면, 인도자가 마무리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를 마쳐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초등부 미션!

- '시편 119편 49절' 말씀을 A4용지에 적어보고 예쁘게 꾸며서 인증 샷을 보내주세요.
- 적어본 말씀은 한 주 동안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고 하루 한 번씩 읽어주세요.

